

노후 아파트 난방비 인상률 '신축의 2배'

5만원 오를때 10만원 ↑...난방 방식 따라서도 에너지 효율 차이

전기요금 인상분 이달부터 반영...다음 달도 고지서 폭탄 가능성

올겨울 가정마다 '난방비 폭탄' 고지서가 날아오면서 불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난방 방식과 아파트 준공 연한에 따라 난방비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토교통부 K-apr 공동주택 관리 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8년 준공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크로 리버뷰 전용면적 84㎡의 지난달 평균 난방비(급탕비 포함) 단가는 15만 2628원으로 전년 동월(10만 2732원)과 비교해 5만원(48.6%) 가량 늘었다.

반면 인근 구축 단지인 강변아파트는 전용 84㎡의 평균 난방비 단가는 같은 기간 14만 364원에서 23만 9904원으로 10만원 가량(70.9%) 뛰었다.

강변은 1987년 준공된 입주 36차 아파트다. 두 아파트는 모두 지역난방 단지인데 같은 면적이라도 구축이 신축보다 난방비가 두 배 가까이 더 오른 것이다.

또 2018년 준공된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 84㎡의 지난해 12월 난방비 단가는 13만 536원인데 인근의 가락금호(1997년 준공) 전용 84㎡ 난방비 단가는 19만 3452원으로, 같은 면적이라도 신축보다 구축이 평균 난방비 단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구축과 신축 아파트는 단열재 등 설비와 환기 방식, 노후화 등이 달라 난방비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한다.

난방비는 난방 방식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인다. 공동주택의 난방은 크게 중앙난방과 개별난방, 지역난방 등으로 구분된다.

중앙난방은 과거에 지어진 아파트 단지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아파트 단지 중앙 기계실에서 파이프를 통해 각 가정에 온수를 공급한다. 중앙난방은 개별난방에 비해 관리 비용이 저렴하다.

지역난방은 최근 건설되는 공동주택에 주로 도입되고 있는데 지역발전소에서 아파트 단지로 증온수를 통해 열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대규모 지역발전소에서 아파트 기계실로 뜨겁게 가열된 증온수를 보내면 아파트에 설치된 열교환기를

통해 각 가정에 온수와 난방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중앙난방과 개별난방에 비해 난방비가 저렴하다.

아파트 면적별로는 대형일수록 난방비가 더 많이 나온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지난해보다 최대 2배 이상 된 난방비 때문에 '관리비 폭탄'을 맞았다는 입주자들의 불만이 거세다. 한 부동산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34평 아파트인데 관리비가 지난해 38만원에서 이번에 55만원 나왔다", "대형 평수인데 관리비가 60만원이 넘었다", "47평 정남향인데 관리비가 66만원이고 난방비만 38만원이 나왔다" 등의 글들이 올라왔다.

문제는 이번 고지서는 지난해 12월 사용한 난방에 대한 청구인데 12월 중반 이후부터 난방수요가 급격히 늘어나 다음 달 청구서에 가스요금 인상분이 본격 반영되기 때문에 다음 달에도 난방비·관리비 폭탄을 맞을 확률이 높다. /뉴스

전남, 싱가포르·말레이시아 시장개척 지원

내달 2일까지 시장개척단 선정...3월20일 수출상담회

전남도는 도내 수출 유망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싱가포르-말레이시아 시장개척 수출상담' 참가기업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전남도 수출정보망 누리집(www.jexport.or.kr)을 참고해 2월 2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전남도는 관내 중소기업 중 현지 바이어 발굴 가능성과 해외시장 진출 준비도, 가능성 등을 검토해 15개사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

싱가포르를 지리적으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중간에 위치해 서남아시아를 잇는 해상교역의 요충지다.

다인종·다문화로 이뤄진 국가로 동남아시아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의 시험 무대로 적합하다. /권영진 기자

말레이시아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만 달러에 달하는 중소득 국가로 아세안 역내 국가 중 중산층이 가장 많아 높은 구매력을 보이고 있다.

전남도는 시장개척단에 선정된 기업을 이끌고 오는 3월 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현지 수입기업과 수출상담을 진행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남지역 본부는 상담 전에 구매력과 재무상태가 건전한 수입기업을 발굴해 3회에 걸쳐 참가 기업의 검증을 받아 상담을 추진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전남도 국제협력관실(061-286-2451)이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남지역본부(061-280-8024)로 문의하면 된다. /권영진 기자

광양만권경제청-한독상의회원사 투자유치활동 전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한독상공회의소와 함께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한·독 경제전망포럼(KGCC Economic Outlook 2023)을 개최하고 50여 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펼쳤다.

한독상공회의소는 1981년 설립, 500여 개의 기업이 정회원사로 가입되어 있으며,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독일-한국 양국 간 교역규모가 331억 달러 이상으로 증가하고, 독일의 대 한국 투자가 174.8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광양만권경제청은 세풍산단, 황금산단, 광양항만 배후부지, 그리고 최근 개발이 완료된 대충산단에 대해 소개했다. 특히 최근 양극재, 배터리 소재 분야 등 핵심전략산업 투자확대가 이뤄진 이차전지 산업의 강점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아울러 외부기업 성공사례와 인센티브 제도로 함께 안내했다.



오늘부터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 주요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이 30일부터 영업시간을 코로나 이전으로 복원해 오전 9시에 문을 열고 오후 4시에 영업을 마친다.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30일부터 이뤄지는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와 함께 영업시간을 오전 9시~오후 4시로 복원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29일 오전 서울 시내에 위치한 시중은행 ATM기를 찾은 시민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스

광주·전남 미래·선도산업 5월부터 금융지원 확대

한은 광주전남, 지원 운용기준 변경, 전략산업 업종 추가

지능형 가전·소재·부품, 바이오 헬스케어, 이차전지 등 혜택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지방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용기준을 일부 변경해 전략산업 업종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미래·선도산업의 지원을 확대해 중소기업 금융지원 제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오는 5월 금융기관 대출 취급부터 적용된다.

전략산업 업종은 기존 자동차, 반도체, 소재 부품, 광산업, 금형, 신재생에너지 산업분야에서, 광주시와 전

남도가 미래산업으로 육성 중인 ICT 융합산업 부문 및 의료·바이오 헬스, 차세대 배터리(이차전지)산업이 추가됐다.

구체적으로 지능형 가전·소재·부품, 바이오 헬스케어 등 ICT 융합 산업 지원을 위해 관련 정보통신업 및 의료관련 제조업을 추가하고 이차전지 등 차세대배터리산업 지원을 위해 축전지 제조업도 포함했다.

이에 따라 전략산업으로 추가되는

정보통신업 영위 업체가 지역특화산업 지원대상과 중복되지 않도록 지역특화산업의 정보통신업 업종코드를 정비 했다.

또 전략지원 부문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범위 조정과 농수산관련 기업 지원대상 등을 정비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박범기과장은 "지방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의 전략지원부문을 선택과 집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비,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권영진 기자

광주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1인 자영업자→10인 미만 지원 확대한다

광주시는 경제위기 상황 속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사회보험료(고용·산재보험료) 지원을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해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고용·산재보험료를 지원한 데 이어 올해는 경기침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비용이 증가한 소상공인을 위한 시책으로 지원 대상을 영세소상공인(1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확대했다.

대상은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는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이다. 월 평균 보수액이 260만 원 미만인 근로자의 고용·산재보험료 중 정부 지원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분 전액을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30일부터 광주 경제고용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광주시기업지원시스템에서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통장 사본·보험료 지원신청서·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사업주가 월별 보험료를 납부하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인을 거쳐 분기별로 사업자에게 입금된다.

'해외 판매 호조' 기아 영업이익 7조원 시대 열었다

지난해 매출, 영업이익 '사상 최대'...해외 판매 5.4% 늘어

기아가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 기록을 다시 썼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불안 등의 장애물을 딛고 이뤄낸 성과다.

스포츠실용차(SUV) 등 이른바 '돈이 되는' 고부가가치 차종 판매가 늘고, 교환율 상황이 지속되며 환율 효과를 톡톡히 봤다.

특히 2020년 2조원대였던 영업이익을 2021년 5조원으로 끌어올린 데 이어 지난해 사상 최초로 '7조원대' 벽을 깼다.

기아는 지난해 매출액 86조 5590억원, 영업이익 7조 2331억원을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 전년 대비 매출액은 23.9% 늘었고, 영업이익은 무려 42.8% 증가했다.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은 모두 사상 최대치에 해당한다. 해외 판매가 전체 실적을 견인했

다. 지난해 기아는 국내와 세계 시장에서 전년보다 4.5% 늘어난 290만 1849대를 판매했는데, 이 가운데 해외 판매가 5.4% 늘어 236만 2551대를 기록했다. 차종별로 보면 준중형 SUV인 스포티지가 39만 6674대 팔리며 해외 최대 판매 모델로 호자 역할을 했다.

환율 효과도 계속됐다. 수출 비중이 높은 기아의 경우 환율이 높아지면 매출과 영업이익이 동시에 늘어난다. 지난해 4분기 원·달러 평균 환율은 전년보다 14.9% 높은 1359원이었다. 이는 기아 매출 확대와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수급난에 따른 출고 지연이 이어진 가운데서 국내 판매도 비교적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아는 지난해 국내에서 전년 대비 1.1% 증가한 54만 1068대를 판매했다.

매출원가율을 낮추는 데 성공한 점도 실적 증대에 기여했다. 매출원가율은 매출액에 대한 매출원가 비율로, 비율이 낮을수록 수익성이 일반적으로 높다. 지난해 4분기 기준 기아의 매출원가율은 77.7%로 전년 동기(80.2%) 대비 2.5%p 낮아졌다.

기아는 경기 침체 속에서도 올해 사업에 대해 자신감을 드러냈다. 먼저 올해 도매 판매를 기준으로 세계 시장에 전년보다 10.3% 늘어난 320만대를 판매한다는 계획이다.

국내엔 지난해보다 8.1% 늘어난 58만 5000대를 판매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해외의 경우 주력 시장인 북미에서 12.6% 늘어난 96만 7000대, 유럽에서 4.2% 늘어난 57만대를 판매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매출 목표는 지난해보다 12.7% 높은 97조 6000억원으로 높여 잡았다. 영업이익은 올해보다 28.6% 늘어난 9조 3000억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광양제철, 철도차량 무탈선 운행 1500일

신기록 달성 기념 행사...철저한 물적·인적요인 관리



광양제철소가 구내 용선운반차(TLC, Topedo Car)와 기관차의 무탈선 운행 1500일 신기록 달성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박남식 광양제철소 공정품질부부장, 김희봉 광양제철소 생산기술부장을 비롯한 생산기술부 직원 및 운송업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5일 광양제철소 생산기술부 직원들은 2018년부터 유지해도 무탈선 운행을 축하하며 앞으로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으며 조업을 임할 것을 다짐했다.

제철소의 심장인 용광로에서 생산된 용선(철물)은 용선운반차에 담겨 철로를 따라 제강공장으로 이동하는데, 이 과정에서 용선을 실은 용선운반차가 탈선하게 되면 공급에 차질이 생겨 생산량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이에 광양제철소 생산기술부는

조강생산량 감소와 탈선 복구에 따른 비용손실을 줄이고자 2018년부터 직책자를 중심으로 직원들이 합심해 △QSS 개선활동 △설비 개선 활동 등을 펼쳤다.

기온 변화시 분체가 됐던 선로전환기를 전자식으로 교체했으며 고하중 차량운행에 따른 선로 변형을 방지하고 체결력을 강화하기 위해 철로 목점목 재질과 체결구 형상을 개선했다. 특히, 생산기술부 직원들은 물적요인 뿐 아니라 인적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최소화에도 힘써 눈길을 끌었다.

철도 차량 영상기록 장치를 도입하고 니어미스를 철저히 분석해 사고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했으며 열연발전 전조등을 용선운반차에 설치해 야간 운행 사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했다. /광양·조준익 기자